



미 증시,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발언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29 일(수) 미국 증시는 미 3 분기 소비지출 둔화, 베이지북에서 내년도 경기 및 물가 둔화 전망, 국제금리 추가 하락에도, 연준 위원들의 상충된 발언, OPEC 회의 경계심리 등으로 혼조세(다우 +0.04%, S&P500 -0.09%, 나스닥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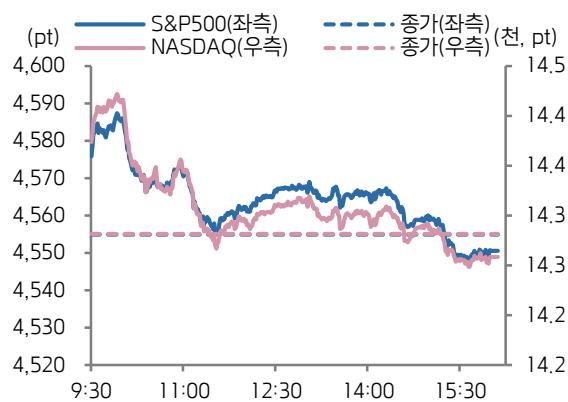
미국 3 분기 GDP 성장률은 QoQ 연율 5.2%(속보치 4.9%, 2 분기 2.1%) 증가, 21년 4 월 이후 최대폭 성장을 기록. 국내총민간투자 10.5%(2분기 5.2%), 정부지출 5.5%(2분기 3.3%)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 그러나 소비지출은 속보치 4.0%에서 3.6%로 둔화. PCE 물가지수는 3.5%에서 3.6% 소폭 상향, 근원 PCE 물가지수는 2.4%에서 2.3%로 하향.

연준은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서 경제의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 둔화, 고용시장 불균형 해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12 개 연은 관할 지역 중 6 개 지역에서 경기 하락세, 노동수요 둔화가 관찰되었다고 언급. 이에 따라 임금 상승 폭도 둔화되어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자신하고 있다고 언급. 애틀랜타 연은 전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내년 말 2.5% 도달, 올해 4 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2%로 둔화하고, 내년 1%, 실업률은 4%까지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 반면 토마스 바킨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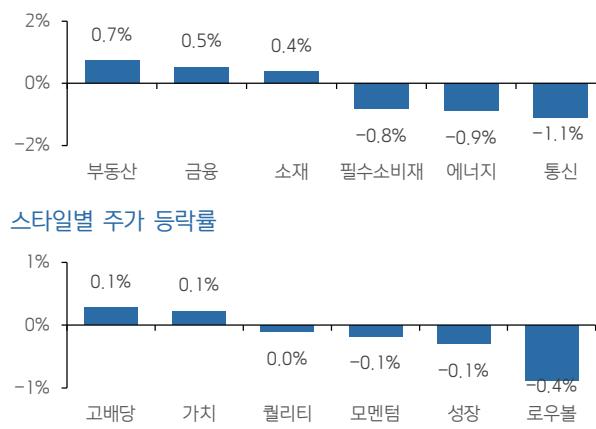
업종별로 부동산(+0.7%), 금융(+0.5%), 소재(+0.4%) 강세, 통신(-1.1%), 에너지(-0.9%), 필수소비재(-0.8%) 약세. 애플(-0.54%), 알파벳(-1.61%), 아마존(-0.48%), 메타(-2%) 등 빅테크 약세. GM(9%)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했지만, 100억달러(12조 9,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2024년 1월부터 배당금 33% 인상 내용을 발표하며 급등. 스포츠웨어 소매업체 풋락커는 올해 가이던스를 하향조정하고 소비자 수요, 둔화 공급사의 변화 등으로 기존 매장 매출이 8%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시장예상 대비 양호한 실적에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19.81	-0.08%	USD/KRW	1,287.96	-0.46%
코스피 200	336.62	-0.27%	달러 지수	102.85	+0.11%
코스닥	822.44	+0.73%	EUR/USD	1.10	+0.03%
코스닥 150	1,307.62	+1.36%	USD/CNH	7.14	+0%
S&P500	4,550.58	-0.09%	USD/JPY	147.19	-0.03%
NASDAQ	14,258.49	-0.16%	채권시장		
다우	35,430.42	+0.04%	국고채 3년	3.550	-10bp
VIX	12.98	+2.29%	국고채 10년	3.640	-9.5bp
러셀 2000	1,803.81	+0.61%	미국 국채 2년	4.646	-8.9bp
필라. 반도체	3,753.36	+0.94%	미국 국채 10년	4.255	-6.6bp
다우 운송	14,816.54	+0%	미국 국채 30년	4.437	-6.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70.53	+0.52%	WTI	77.7	+1.69%
MSCI 전세계 지수	691.99	+0.22%	브렌트유	82.9	+1.49%
MSCI DM 지수	3,012.57	+0.15%	금	2065.3	+0.25%
MSCI EM 지수	985.47	+0.81%	은	25.04	+0.42%
MSCI 한국 ETF	63.38	-0.17%	구리	380.2	+0.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8.9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10년물 금리 4.2%대 진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한은 금통위 이후 국내 채권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변화
3.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장후반 이후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증시를 둘러싸고 1) 미국 경기 논쟁 뿐만 아니라 2) 해지펀드 빌 애크먼의 연준 3월 금리인하 언급 등으로 상반기 총 2 회 금리인하 기대감 vs “금리인하 시기 상조 및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매파 발언 등 여러모로 갈피를 잡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모습.

일단 지금까지의 매크로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 전쟁 발발 당시 100 달러 돌파 전망이 부각되기도 했던 국제 유가는 현재 80 달러대 이하로 내려왔으며, 5.5%대도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미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2%대까지 속락하는 등 유가와 금리 하락은 11월 중 증시에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긴 했음.

하지만 만약 유가나 금리가 현수준에서 한 차례 더 레벨 다운된다면, 주식시장도 더는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극심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가정을 주가에 반영할 소지가 있음. 3분기 성장을 전망치가 상향(4.9 → 5.2%)되긴 했지만, GDP 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4.0% → 3.0%)는 하향 됐다는 점이나,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는 점도 같이 봐야함.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침체가 증시에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전 침체 진입 직전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악화되고 있는 고용,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등을 고려해 볼 필요. 결국 과거처럼 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닌 침체 강도 문제가 더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 미국은 얇은 침체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증시에 제한적인 영향만 가할 것으로 판단. OECD 의 24년 전세계 경제전망에서도 23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4%(9월 2.2%)로 상향조정 됐으며, 24년 성장을 역시 (23년에 비해 둔화되는 것은 변함없으나) 1.5%(9월 1.3%)로 상향 했다는 점은 미국 경기가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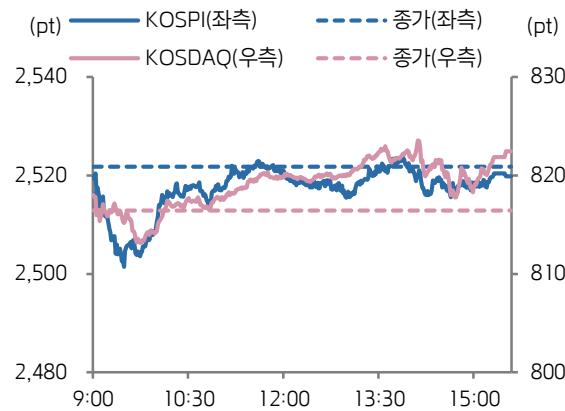
주변 교역국 경기에 민감한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OECD 가 한국의 23년 성장률(기준 1.5% → 1.4%)은 소폭 하향했으나, 24년 성장률(2.1% → 2.3%)로 상향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요인. 상향 배경은 과거에 비해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중국 경기 전망 개선(4.6% → 4.7%), 국내 증시의 대표 업종인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 가시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 결론적으로 11월 CPI, 12월 FOMC 등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시에 주입되더라도, 주가의 진폭만 키워낼 뿐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완화적이었던 매파 연준 인사의 발언 등에 따른 금리 하락에도, 중화권 증시 약세 속 최근 주도 테마주들간 순환매 장세 등으로 인해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혼조세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0.7%)

금일에는 미 10년물 금리 4.2%대 진입, OECD의 성장 전망 상향에도, OPEC+의 100만배럴 추가 감산 가능성에 거론된 정례회의 경계심리, 장중 금통위 결과 이후 국내 금리 및 환율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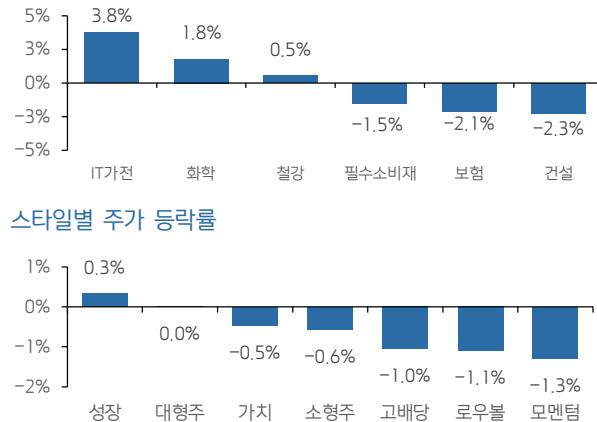
여전히 국내 증시는 업종간 빠른 순환매 지속, 업종 내 종목들간 수급 변동성 확대 등 매크로 이슈 뿐만 아니라 수급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이런 관점에서 금일 MSCI 정기 변경에 대한 리밸런싱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통상적으로 리밸런싱 날에는 편출입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 이외에도 한국, 인도, 중국 등 국가간 비중 조절도 일정부분 단행되는 경향이 존재. 그 과정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외국인의 기계적인 수급 변화가 장후반 및 동시호가에서 증시 전반에 걸쳐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게 됩니다.	